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2024년 11월 29일 제41호

연 구 원 김 종 현
연 구 원 서 유 나

하나로연결된 모두의금융.

HIF 월간 산업 이슈(11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반도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

- 최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자국 수요에 힘입어 중국 D램 업체 CXMT, 파운드리 업체 SMIC 등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범용 D램 제품을 감산할 계획이며, 향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된다면 중국 수요 대체로 국내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해운

트럼프 재선으로 미주 탱커, LNG 시장의 기대감 상승

- '24년 11월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미국 내 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석연료 회귀 방향으로 인해 미국發 원유 및 LNG 수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편,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중동發 원유, LNG 수출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항로별 운임은 상이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산업 이슈

반도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

해운
트럼프 재선으로 미주 탱커, LNG 시장의 기대감 상승

C26. 반도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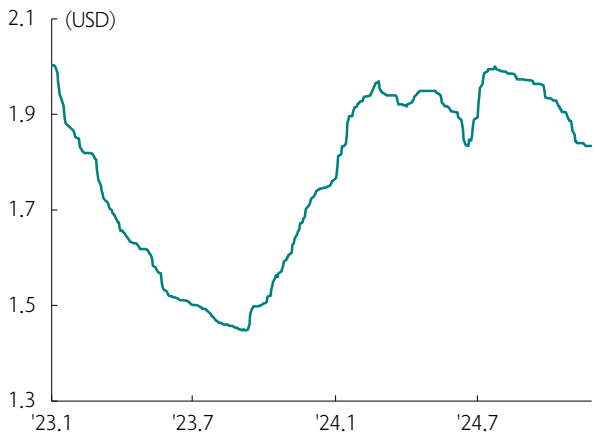
연구원 서유나

※ Summary : 최근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3분기 실적발표에서 중국發 레거시 반도체 공급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자국 수요에 힘입어 중국 D램 업체 CXMT 및 파운드리 업체 SMIC 등이 레거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매출 등 외형 성장을 하는 모습. 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저수익 범용 D램 제품을 감산할 예정.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가속화된다면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과 유사하게 시장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 수요 대체로 국내 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의 대량 양산에 성공하고 빠르게 공급을 늘리면서 '차이나 리스크'가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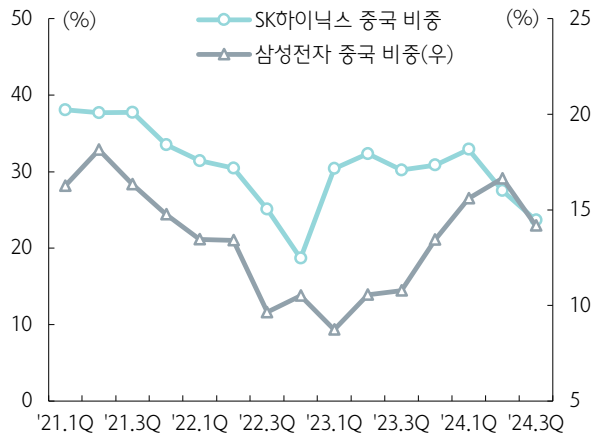
-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실적발표에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레거시 제품 공급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
- 중국이 D램 및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부문에서 레거시 공정을 위주로 제품 개발 및 대량 양산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
  - 구형 D램(DDR4) 양산에 성공한 중국 업체들이 DDR4를 시중 가격보다 약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
- 특히 글로벌 최대 전자제품 제조국인 중국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범용 제품을 시작으로 자급 체계를 구축한다면 국내 업계의 중국向 매출 축소가 우려
  - 중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출액의 각각 14.2%, 23.7%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 ('24.3Q 기준)

그림1 | 메모리 가격 동향



주: DDR4 8Gb(1G×8) 2666Mhz 현물가 기준
자료 : Dramexchange

그림2 | 국내 반도체 업체의 중국 매출 비중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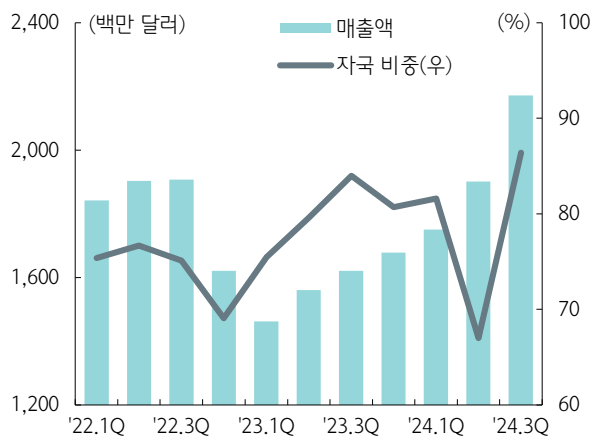
■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및 자국 수요에 힘입어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상황

-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16년 설립 이후 매년 기술 업그레이드에 성공하며 올해 3분기부터 16나노(1z)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존 한·미가 주도하는 메모리 시장을 침투 중
  - 1z 제품은 삼성전자가 '19년도에 출시한 제품으로 5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제품은 현재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의 30%를 차지할 만큼 주요 수익원
- 또한 CXMT는 2세대 HBM(HBM2) 장비 반입을 시작('24.8)했는데 양산에 성공할 경우 첨단 제품 대비 부가가치는 낮지만 국내 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HBM2는 국내 업계가 올해 1분기 2,600만개 이상의 출하량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
-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중국 SMIC가 올해 3분기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전년 동기비 34% 증가한 21억 7,119만 달러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
  - SMIC 매출 중 중국 비중은 75.1%('22.3Q) → 84.0%('23.3Q) → 86.4%('24.3Q)로 증가하는 추세
  -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24.2Q): TSMC(62.3%), 삼성전자(11.5%), SMIC(5.7%), UMC(5.3%)

■ 향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공한다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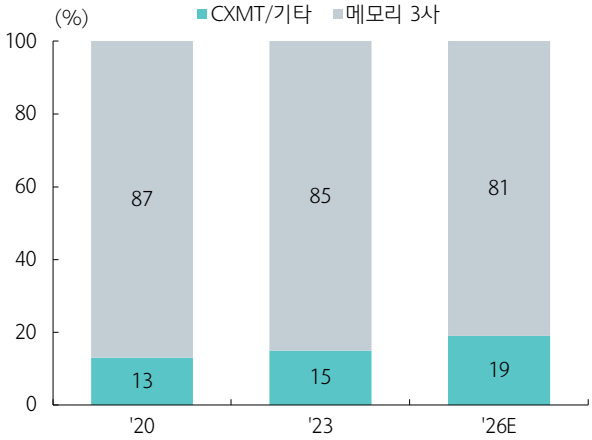
- 이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는 첨단 및 고부가 반도체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DDR4, LPDDR4 등 범용 D램 생산을 축소할 예정
  - CXMT 등 중국 업체의 성장으로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메모리 3사 점유율이 약 80%까지 낮아질 전망
- 중국이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한다면 과거 디스플레이 산업과 유사하게 High-end 및 Low-end로 시장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매출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정책 강화에 따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자립이 늦춰질 수 있음

그림3 | 중국 SMIC 실적 추이



주: 자국 비중은 총 매출 중 중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
자료 : Bloomberg

그림4 |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전망



주: 메모리 3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자료 : JP Morgan

H. 해운

트럼프 재선으로 미주 탱커, LNG 시장의 기대감 상승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의 원유 생산 및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할 전망. 북미 지역의 원유 및 LNG 프로젝트의 재개가 가속화되며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미국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한국, 인도, 네덜란드 등으로 향하는 항로의 탱커 시황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 반면, 트럼프 외교 정책으로 이란과 관련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동의 에너지 수출 차질이 예상되며, 미국의 에너지 수출은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동과 미주의 항로별 탱커 시황은 상이한 흐름을 보일 전망

■ 트럼프 당선에 따른 에너지 정책 변화로 美 원유 생산 및 화석연료 수요가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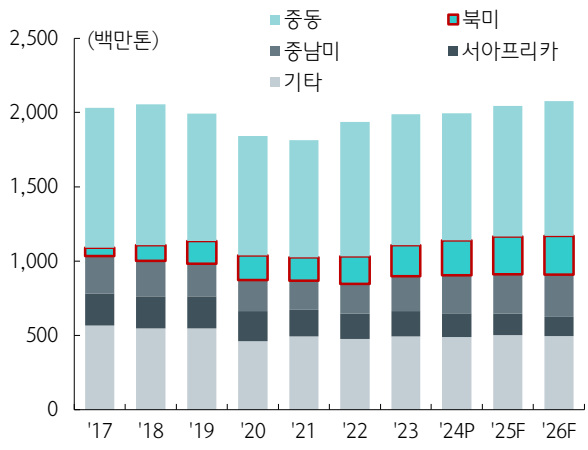
- 트럼프는 "드릴, 베이비, 드릴" 슬로건을 내세우며 미국 내 원유 및 가스 생산 확대를 강조하는 등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화석연료 회귀로 설정
  - 트럼프는 환경 규제 완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국 내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려는 입장으로 향후 화석연료와 원자력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축소할 전망
- 한편,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 및 미국산 원유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아울러 트럼프의 강경 외교 정책에 따른 對이란 제재 강화로 인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중동의 원유 수출 차질에 따른 대체 수요로 미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표1 |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구분	정책
슬로건	화석연료 규제 축소
석유	생산확대
북해 유전	규제 철폐
석탄, 셰일가스	**규제 축소와 개발 확대**
천연가스	**LNG 수출 활성화**
파리기후협약	탈퇴
조세 혜택	특정 에너지 편중 불가
탄소세	반대
키스톤 XL 송유관	100% 승인

자료 : SK이노베이션

그림5 | 지역별 원유 수출 물동량 추이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원유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LNG 수출 물동량에도 긍정적 영향

- 현재 바이든 정부는 LNG 프로젝트 확대나 수출 관련 규제를 엄격히 시행 중이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관련 규제가 약화되고 LNG 수출이 확대될 전망
  - 바이든은 지난 1월 LNG 수출시설 신규 건설에 대한 승인을 무기한 동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미국 내 중단된 LNG 프로젝트가 12개를 초과
  - 현 미국에서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상세설계(UC) 16건, 기본설계(FEED) 17건, 타당성 검토 8건으로 이들의 총 생산량은 연 2.5억톤, 필요 선박은 487척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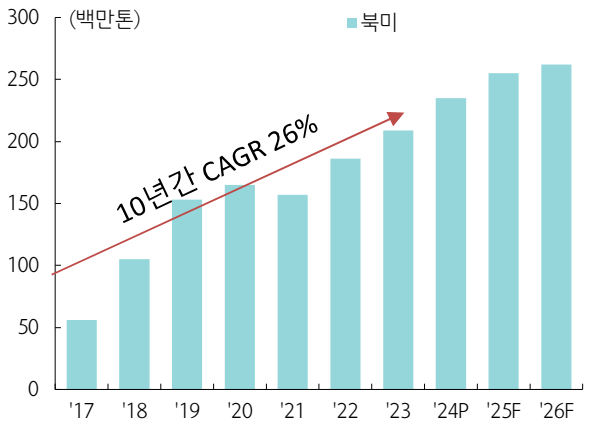
- 아울러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에게 미국산 LNG를 유럽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하면서 미국의 LNG 수출 확대 기조의 발판을 마련
  - 러-우 전쟁 이후 유럽의 미국산 LNG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유럽의 미국산 LNG 추가 수입 의사 확대를 통해 미국은 LNG 증산 물량의 공급처 확보가 가능

■ 한편, 글로벌 원유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항로별 물동량 추이는 상이한 흐름을 보일 전망

- 국제 에너지 기관들은 中 원유 수요 둔화와 기대 이하의 글로벌 경기로 인해 원유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트럼프의 긍정적 효과는 미국 등 특정 지역에 제한될 것으로 판단
  - 미국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한국, 인도,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의 원유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미-아태, 북미-대서양 항로의 탱커 시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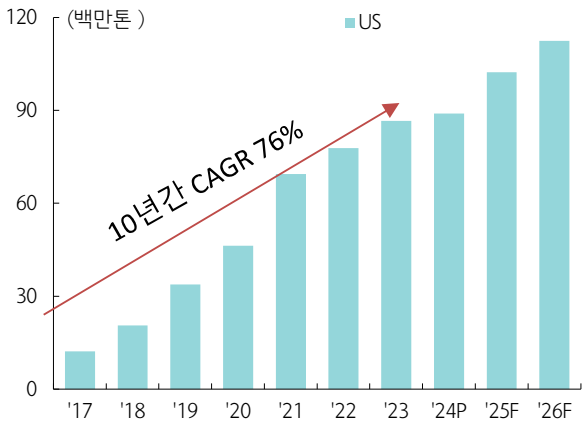
- 아울러 원유 공급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중동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원유, LNG 수출이 일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
  - '25년 글로벌 원유 수출 해상 물동량은 2%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의 원유 수출 해상물동량 증가율 역시 2%로 전망되나 북미의 원유 수출 해상물동량 증가율은 9%로 전망
  - '25년 글로벌 LNG 수출 해상 물동량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의 LNG 수출 해상 물동량 증가율은 0%, 북미의 LNG 수출 해상물동량 증가율은 15%로 전망

그림6 | 북미 지역의 원유 해상 수출 물동량 추이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그림7 | 북미 지역의 LNG 해상 수출 물동량 추이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